

# 오월 어머니 소녀시절 꿈 그림에 담았어요

## 아버지, 고향 등 서정적 어조로 그려



오월어머니집 어머니들이 오는 21일부터 5월 29일까지 재단 8층 여성전시관 허스토리(Herstory)에서 기획전시 '내 안의 그녀'를 개최한다. 사진은 기획자 정진영 작가와 어머니들 모습.

오월어머니들의 상처와 애환, 그리고 그들의 내면 속 어린 시절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알루미늄 철사로 만든 '오월꽃', 연대의 힘을 통해 세상이 안전하고 아름답게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세월호 참사', 색모래로 바다를 표현한 액자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자.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미경)은 오는 21일부터 5월 29일까지 재단 8층 여성전시관 허스토리(Herstory)에서 기획전시 '내 안의 그녀'를 개최한다. 율초 공모를 거쳐 선정된 프로젝트다. 이번 전시는 (사)오월어머니집(광주시 남구 양림동) 어머니 25명과 조각가 정진영씨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함께 기획했다. 오월어머니집은 1980년 5월 일어난 광주 5·18 민주화운동으로 가족을 잃거나 부상을 입은 어머니들이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하면서 '오월정신'을 알리고 있는 터전이다.

'내 안의 그녀-오월 꽃이 화알꽃 피었습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투쟁현장에서 노약자를 보여주고 있는 오월어머니의 정서를 함께 나누는 동시에 어머니들의 꿈 많은 소녀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리다.

정진영 작가는 지난 4년간 매주 월요일 오월어머니집을 찾아 어머니들과 미술작업을 진행했다. 전담대를 졸업한 정 작가는 5·18광주민주화운동 35

오월어머니집 어머니 25명 참여  
21일~5월29일까지 광주여성가족재단  
정진영 작가 기획, 60여점 전시  
오월의 애환과 아픔 담은 작품도

주년기념 갈-울전남조각회전, 우리미술연구회전, 두 사람의 조각전 등에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작가다.

"어머니들과 몇 년 동안 미술활동을 하면서 이들이 진정한 작가이자 예술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어머니들의 작품을 우린만 보기는 너무 아까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세상에 내놓고 싶었습니다. 다 같이 모여 작업할 때면 옆 사람과 재잘거리며 수다를 떠는 모습이 꼭 여학생 시절로 돌아가시는 듯했어요. 또 서로 더 잘하려고 경쟁하는 모습도 있었죠. 소녀같은 모습이 귀엽고 영락없는 짝쟁이들이었어요.(웃음)"

정 작가는 "어머니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작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크로키 북 한권도 4시간이면 금방 완성하시곤 했다"며 어머니들의 열정을 칭찬했다.

전시에서는 플라주, 크로키 기법 등을 이용한 작

품들과 어머니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 등 총 6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반복되는 오월의 아픔을 가슴으로 토해내며 형체를 만들고 색을 입혀가면서 진행해 온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며 회생-현신의 아이콘이 아닌, 꿈 많고 발랄했던 어머니들 내면 속 어린 시절 '그녀'를 찾아가는 작품도 준비했다. 전시에 참여하는 어머니들은 강해중·김순심·김정자·김형미·박순금·박유덕·박지영·박현순·박형순·박화순·안성례·이귀임·이명자·이향란·임근단·임금자·윤삼례·원사순·장삼남·정동순·정현애·주임순·최 덕·최정자·한양님 등이다. 정 작가는 "전시를 통해 어머니들께서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며 여류작가로서 당당히 한 걸음 내딛게 되길 바란다"며 "오월어머니라는 숭고한 정신의 프레임을 넘어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고 있는 그녀들에게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미술활동을 하며 이번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은 수십 년 잊고 살아왔던 꿈 많고 발랄했던 내면 속 '그녀'를 찾아가는 작업으로 완성됐다"며 "이번 '내 안의 그녀' 전시를 통해 우리는 불혹을 맞은 5·18민주화운동 역사와 의미를 되짚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코로나19로 별도의 전시 오픈 행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전은희 기자 ej6621@kwangju.co.kr

### 이보영 시조시인 '따뜻한 유산' 펴내

"나는 가끔씩 '나는 누구인가?'라고 반문해 본다. 나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으며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은 끊임없이 나를 향해 찾아가는 길이며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계속 걸어가는 진행형이라고 생각한다."

해남 출신 이보영 시조시인이 세 번째 작품집 '따뜻한 유산' (고요아침)을 펴냈다.

이번 작품집에는 '비정규직', '마중물', '아버지의 뒷모습', '물소리가 길을 떠다' 등을 주제로 모두 60여 편의 시가 수록돼 있다. 특히 이번 작품집에는 '자전적 시론'이 실려 있어 시인의 작품 세계를 좀더 친근하고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다.

시인이 지향하는 시조란 끊임없이 찾아가는 길로 정의된다. 또한 아버지에 대한 추억과 기억이 글을 쓰는 자양분이 됐으며, 힘들 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근원이라고 고백한다.



"배우기 목적 타고 송화가 루 날리면/ 다량은 정기질에 산그늘도 따라 울고/ 허기져 굶은 등으로/ 봄을 캐던 아버지// 꽃보리도 다급해서 절뚝이며 남던 고개/ 지금은 어디에서 봄이 온 줄 아시는지/ 뒷산에 진달래꽃은/ 금년에도 붉습니다."

'봄 회상'은 지난 시절 보릿고개 이야기를 담았다. 모네기를 위해 눈에 물을 가두고 정기질을 하는 장면이 수록화처럼 펼쳐진다. 60, 70년대 보릿고개 이야기는 오래 전 시골 풍경이지만 시인의 원초적 자아 속에 남아 있는 강렬한 풍경이다.

한편 이보영 시인은 2002년 '시조세계' 신인상으로 등단했으며 '물소리가 길을 낼 때' 등을 펴냈고 전남문학상과 전남예술상을 수상했다. 국제PEN광주시조분과위원장, 열린시조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비오는 날 '토란우산'에 얽힌 추억

#### 박선영 시인 동화 '집으로 가는 길' 펴내

나주 출신 박선영 시인이 동화 '집으로 가는 길' (하움)을 펴냈다.

현재 장애인 학교 교직원으로 근무 중인 시인은 올해 회갑과 8월 정년을 맞는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책을 발간했는데, 동화 속 그림은 조대 미대에서 디자인을 공부한 아들 핸드아이즈(본명 서정선)의 작품이다.

동화는 비 오는 날 토란 우산을 쓰고 집으로 가는 길에 느꼈던 단상이 모티브가 됐다. 가난한 시절, 다른 친구들은 우산을 쓰고 가는데 자신은 토란우산을 쓰면서 갔던 일화가 자연스럽게 한 편의 동화로 탄생했다.

"토란우아, 고마웠어! 토란우를 도르러 밭에 강아지풀로 묶었어. 가방 고리에 단단히 댄지. 또, 비



오면 동생들에게 요정 놀이 가르쳐주려고."

주인공 이야기는 60-70년대 살았던 이들에게는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한 번쯤 겪었을 법한 경험이 서정적인 이야기로 재탄생했다.

박 시인은 "엄마들이 애들과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될 만한 아름다운 추억 이야기"라며 "정서가 메말라가는 시대에 소소한 이야기가 위안과 공감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시인은 광주교육대 대학원 아동문학과에서 동화를 공부했으며 지금까지 시집 '길게 울었다'를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교보문고 스토리공모전...5월 31일까지

#### 중장편·단편소설, 동화 부문

교보문고(대표 박영규)가 제8회 스토리공모전을 연다.

이번 공모전은 창의적 이야기를 보유한 참신한 작가와 영화·드라마·웹툰 등 2차 콘텐츠 활용이 가능한 작품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스튜디오 S, 쇼박스가 주최하고 고려대출판부·도서관, 투유드림,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흥당무가 후원한다.

희망자는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장르와 내용도 제한이 없다. 중·장편소설, 단편소설, 동화 부문에서 5월 31일까지 접수해야 하며 신청서에 주제, 기

획 의도, 등장인물, 줄거리 등을 쓰고 원고와 함께 교보문고 스토리에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대상 상금은 3000만원이고 총상금은 6600만원이다. 전자책 출간과 2차 콘텐츠 가공도 지원한다. 심사는 예심과 본심으로 나눠 진행하며 장편 본심에 오른 작품은 인터넷교보문고에서 실시하는 독자투표와 함께 전문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한다. 수상작은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스토리공모전은 7회의 공모전을 통해 수상작 중 '조선환담공작소: 꽃파랑', '루악인간' 등은 드라마로 제작돼 외국으로도 수출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문화재단, 근현대 광주 생활·문화사 연구단체 모집

#### '광주문화 백년대계를 꿈꾸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김윤기)은 근현대 광주 문화를 소재로 활동하는 연구자 또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소모임 지원사업을 펼친다. 일명 '광주 문화 백년대계(百年大計)'.

'2020년 광주문화자산구축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지난 100년간 광주 근현대 문화

자원을 활용해 미래 백년의 광주문화를 새롭게 열어가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근현대 광주의 문화, 사회, 생활사를 토대로 활동하는 4인 이상의 소모임 그룹이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소모임은 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오는 30일 오후 6시 이전에 이메일로 접수해야 한다. 심사는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소모임 운영계획서 등 서류심사로 진행한다.

지원금은 총 1600만원 규모로 4-5개 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소모임은 자율적으로 소모임 활동과 문화재단에서 개최하는 플로키움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추후 소모임별 활동 주제에 맞는 원고를 제출하면 되며 향후 결과물은 책자로 발간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연구교류팀 문의.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b>퀵타로카드</b>	<b>금성가설재</b>	<b>만福당</b>	<b>동양철학원</b>
지하철 금남로5가역 4번출구앞(신한은행앞) 궁합, 사주, 신수, 취직운, 택일, 작명, 운수판단, 인생상담 타로마스터 ☎ 010-3640-6429	나주시 영강길43 (대덕아파트앞) 건축, 자재 임대·매입 신용분위 ☎ 061)333-0708, 010-2216-8938	동구 제봉로 184번길 5-9 (대인시장내) 골동품, 석물, 도자기, 민속품, 고가구 미술품매도·매입합니다. 찾는 물품을 찾아드립니다. ☎ 062)959-0680, 010-4602-0680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 062)224-7687, 010-2611-7687
<b>국수나무 광주용봉점 (비엔날레)</b>	<b>남문냉동</b>	<b>무크광주세정점</b>	<b>한성꽃화원</b>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KB국민은행건물) 모든메뉴 포장및배달가능 직접전화및배달주문(배달의민족, 오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나주시 이창동 풍물시장2길 5-4 저온저장고제작수리, 영업용 냉장·냉동수리 에어컨 전문설치 ☎ 061)333-2779, 010-3610-2779	서구 상무대로 773, 세경아울렛2층 258호 화사한 불신상품 대량인고 남·여 20~40%세일 (일부품목제외) ☎ 062)370-9258	나주시 나루로71 (송월동 LG화학앞) 근조·축하화환, 동·서양란, 관엽전국배달 ☎ 061)334-3200, 010-3623-6921
<b>김동일쉐프</b>	<b>우리뷔페</b>	<b>개성전통한방삼계탕</b>	<b>천상일월태주명</b>
동구 지호로42(지산2동사무소앞마트앞) 갈비해장국, 갈비탕, 육개장, 곰창전골, 무침조림 예약주문 각종모임환영 ☎ 062)228-1975, 010-9622-8938	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 2월17일오픈!! 정성과세로운맛으로 보듬어드립니다. (회사·단체 강부환영) ☎ 062)381-0066, 010-3085-0140	서구 치평동 케이원하이빌 1층 삼계탕전문점 포장가능합니다. ☎ 062)383-3454, 010-2106-0424	나주시 남의동33-3번지 남고문뒤편 중합, 사주, 신수, 택일 전문점 ☎ 010-2617-3635
<b>광명천막기업</b>	<b>유가네한우곰탕 광주대인점</b>	<b>연아불교용품</b>	<b>남악장례식장</b>
북구 천변우로 285-1(누문동) 패션어닝, 철구조물창고, 차광막, 일반포장 피라슬, 자비라천막, 차호루 ☎ 062)526-6153, 010-6646-7282	동구 대인동 324-18번지 30년전통 깊고 진한곰탕의맛! 한우맑은곰탕, 한우사골순대국, 한우사골 설렁탕 한우육수 육개장 '모든메뉴 포장가능' ☎ 062)464-1425	전남 나주시 영산포로 261-1 (영산포구역전앞) 불교용품, 무속용품 모든것 조상웃. 양초 판매 ☎ 061)334-0088	전남 무안군 심향읍 남악로 250번길 59-30 시그니티 요양병원 1층 최신시설완비 친절·신용·분위 각종장례용품업자제공 ☎ 061)285-0444
<b>국제행복찾기 결혼정보</b>	<b>박당화랑</b>		
나주시 동점문길 8(중앙동98-6)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최고의만남을 추천합니다. ☎ 061)337-7712, 010-5288-3257	동구 궁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및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		